

자이툰 부대원 파병후 첫 사망

장교 1명... 부대내서 총상입고 숨진채 발견 軍, 사망경위 규명 위해 수사팀 현지 급파

이라크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중인 자이툰부대 장병이 부대 내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2004년 자이툰부대가 파병된 이후 첫 사망자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현지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45분(한국시간 오후 6시45분)께 오오 중위(27)가 영내에 있는 자이툰병원 의무대 이발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경위=오 중위는 텍 부위에 총상을 입고 바다에 엎드려 숨진 채로 의무대 행정병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는 오 중위가 평소 사용하던 K-2 소총 한 정과 탄피 한 발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중위는 자이툰부대 6진 2차 교대병력으로 지난달 26일 파병돼 의정(의무행정) 장교로 활동해왔다.

합참은 "현재 자이툰부대가 정확 한 사고 경위를 수사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사건현장에 대한) 외부 침입이나 다른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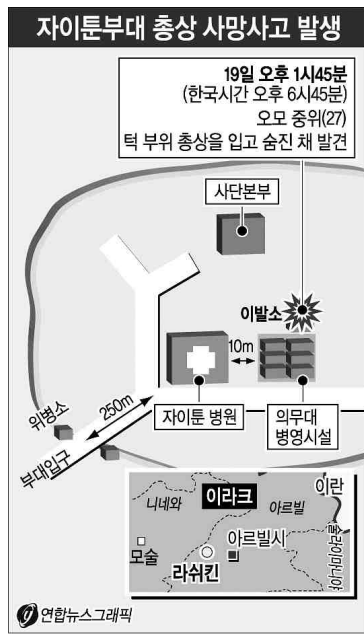
○군 수사·유해인수팀 급파=국방부와 합참은 김근태(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오 중위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을 급파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3명이 20일 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아르빌로 들어갈 것"이라며 "합참 인사군수참모본부 소속 장교 2명으로 이뤄진 유해인수팀과 유족들도 이날 함께 출국한다"고 전했다.

총기감식 및 현장사진, 전문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오 중위의 개인물품을 조사하고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 정확한 사망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군 첫 사망사고에 당혹=군당국은 이라크북부 아르빌에서 2년 8개월째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에서 첫 사망 사고가 나자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2004년 9월 초부터 아르빌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자이툰부대는 같은 해



9월 22일부터 본격적인 평화·재건활동에 돌입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병 인명 손실 없이 임무를 수행해 왔다.

군당국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우려하면서 사고 사망 원인을 추정하거나 사망자의 부대생활 곤란 등 사망원인 규명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입 주심을 하고 있다.

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선불리 발언했다간 유족들을 자극할 수 있고 사망원인 규명작

업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 중위의 사망경위를 놓고 파병 장병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전투스트레스 또는 개인적인 문제, 부대 동료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일 반론적인 추정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달 26일 파병된 오 중위가 임무 수행기간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들 원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3사관학교 출신인 오 중위는 의무행정 장교로 파병됐지만 결원 상태인 중대장 직무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중위의 사망경위는 과전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은 오 중위 사망사건의 조사결과가 연말까지도 예상되는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 시한을 앞당기지 않을 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6월 말까지 부대 임무종결 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자이툰부대의 임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연말께로 예상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성 약진' 프랑스 새 내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첫 내각회의를 주재한 뒤 신임 장관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제린 바셀로 보건·스포츠장관, 미셸 알리오-마리 내무·해외영토장관, 크리스틴 알비넬 문화장관 겸 정부대변인, 프랑수아 피용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발레리 페레스스 고등교육·연구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농수산장관,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 크리스틴 부탱 주택장관. /AFP=연합뉴스

진성호는 왜 7시간 지연 입항했나

골든로즈호 충돌 후 '의문의 공백시간' 남겨

지난 12일 오전 3시8분(현지 시각) 중국 엔타이(烟台) 인근 해역에서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金盛)호가 예정보다 7~9시간 늦게 대련(大連)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의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당시 진성호에 화물수송을 맡겼던 다렌의 한 한국인 해운업자에 따르면 진성호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다렌항 컨테이너부두에 입항, 화물을 싣고 당일 오후 6~7시까지 다시 일본을 출발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이었

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의 한 해운 전문가는 "사고지점이 다렌 남동쪽 38마일 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성호가 충돌사실을 모르고 정상 속도로 계속 항해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오전 6~7시 정도에는 다렌항 입항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언급을 종합해보면 진성호는 사고 당일 입항 예정시간보다 짧게는 7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까지 늦게 다렌항에 입항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진성호가 골든로즈호

와 충돌 직후 이런 긴 시간 동안 바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진성호의 한 선원은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해 항구로 들어왔으며, 뒤늦게 선체가 훼손된 사실을 알고 중국 해사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진술도 중국 교통부 해상수색구조중심이 지난 17일 사고 당일 진성호 관리회사와 부광해운측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엔타이=연합뉴스

세계최강 전투기 F-22 美 공군 이례적 공개 스텔스 기능 갖춘 제5세 전투기



미 공군은 18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기지에서 현재 운용중인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일명 랩터·사자)를 일반인 및 언론에 공개했다. 미군이 전세계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개발한 제5세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F-22는 특히 최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추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더욱 관심을 끌었던 전투기다. 미국은 F-22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법으로 F-22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 이날 에어쇼에서 광음을 울리며 순식간에 쫓겨 하늘로 치솟은 F-22는 수직상승과 360도 회전, 엔진 정지 후 자유낙하비행 등 특이한 기동을 잇따라 펼쳐며 카메라와 관람객들의 시선을 '빨아들였다'.

F-22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며 양쪽 날개 밑에 각각 2천300kg(5천파운드)씩의 폭탄을 적재하고, 20mm 포 1문, AIM-120 미사일 4기, AIM-9 사이더와인더 미사일 4기 등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대순항속도는 마하 1.8에 이르고 '에프터 버너'없이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작전반경은 3천km 이상에 이른다. 미 공군은 F-22를 개발한 뒤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F-22 이전까지 최고 항공기로 꼽혀온 F-15 전투기와 144차례 가상대결을 벌였으나 단 한 차례도 격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에 따르면 대당 구매가격은 부속장비에 따라 1억3천만~2억달러에 달한다. /워싱턴=연합뉴스

어학연수 한국대학생 2명 중국서 감전사

중국 상하이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한국 대학생 2명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상하이 바오산(寶山)구 상하이대학교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황모(21·단국대 무용과 2년)양과 김모(22)군이 19일 오후 9시30분 학교 앞 분수대에서 숨졌다.

황양의 친구 임모양은 황양이 식사 후 분수대에 발을 담그다 갑자기 쓰러져 김군이 황양을 구하기 위해 분수대에 따라들어갔다가 함께 숨졌다 고 말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 측은 유족들이 상하이에 도착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상하이=연합뉴스

北 '국방위' 최고 권력기구 자리잡나

김영춘 전 총참모장 등 군부 핵심인물 속속 이동

최근 북한 군부의 핵심인물들이 속속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위가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에서 북한 군부의 2인자였던 김영춘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에는 리명수 대장도 작전국장에서 국방위 전임으로 보직을 새롭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종 시찰에 동행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들.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다른 직함을 가지면서 겸직으로 국방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국방위의 전임자로 인사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명룡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겸직하고 있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도 전병보 노동

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를 비롯해 국방위 위원 4명도 모두 겸직이며 최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춘도 노동당 국제부장을 하면서 국방위원회 차를 동시에 담당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국방위원회는 구체적인 지도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북한 군부의 핵심실세들이 전임으로 자리를 채우면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6월 1일 첫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공인중개사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편)

점단점 ☎ 971-0002 (빅마트 점단점 옆 광주은행 4F)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다양한 기능 습득 (시간: 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체 보충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등)로 전액 국비교육, 교재무료제공, 수당지급.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자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공인중개사 (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개강 사무자동화 (월-금) 5/16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기 타 사 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의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저자격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강의 DVD 녹화대여로 반복학습

버스노선: 전남여고→불성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예술의거리입구→동안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문화전망역(구 도청)→지원07, 지원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중앙61, 문흥9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직접능력개발훈련시설 ☎

7.9 공무원 대비

"속보" 전남 9급 교육행정직 하반기 시행확정 채용인원 000명=

행정직, 교육직, 세무직, 관공직, 감사직, 복지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7월 8일(수)~7월 23일(수) • 전북 9월 8일 시행 =

6월 1일(수)~6월 11일(수) =

6월 1일(수)~6월 11일(수) =

6월 1일(수)~6월 11일(수) =

6월 1일(수)~6월 11일(수) =

www.mdgosi.co.kr ☎ 222-4560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장없이 2개월 책임 완성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동부경찰서 옆 http://www.hdedu.co.kr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반
- 08년 편입시험 대비반 (일반편입/학사편입)

개강 6월 1일

★ 수준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광주동부경찰서 옆 김명(PMS)학원 227-8088